

#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민주 김관영 도지사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등  
수도권 후보 지원 유세

“민주당에 주는 한 표가  
尹 정부 견제 큰 힘”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지난 28일 국민의 힘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을 찾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가 지원한 민주당 후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인천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선 후보로 대선 이후 정국 주도권 확보의 분수령인 곳이다. 이날 김 후보는 평택 통북시장과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성수동 카페거리 김포 등의 유세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인천계양도민회 간담회를 비롯해 호남향우회 관계자 등을 만나 전북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지난 28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과 호남 출신들이 수도권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후보는 “전북도지사 선거 기간 중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수도권 지원유세에 나섰다”면서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민

주당 후보들을 꼭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으로 재무장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을 세계 식품시장 중심으로 가꿀 것”

국힘 조배숙 도지사 후보  
전주·완주 오가며 지지유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정운천 국회의원(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본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전주와 완주를 오가며, 집중 유세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른 아침 전주 송천동 원예농협공관에서 거리유세를 시작한 조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전북을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가꾸겠다는 포부를 설명하며 “전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농업지역으로서 농업과 생명산업을 주도할 기반이 돼있다”면서 “관련산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완주 삼례시장으로 이동해 장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힘있는 여당 도지사”를 말하며 “바뀌야 변한다. 적극적인 투표 바꿔보자”고 호소했다

이어 거리유세에 나선 조 후보는 “완주가 저의 정치 지역기반인 익산과 이웃이라 더 정이간다. 도지사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전주와 완주의 통합논의를 시작해 완주를 ‘전주권균형발전광역시’로 승격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메가시티는 ‘서해 죽이 되고, 전주권균형발전광역시는 내륙축이 돼 전북 발전을 함께 견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정운천 의원(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본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전주와 완주를 오가며, 집중 유세로 지지를 호소했다.

하는 쌍끌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유세 중 “경쟁 상대인 김관영 후보가 수도권 지원유세를 위해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선거 막바지인데 이렇게 전북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전북 뒷전 지사 김관영 후보를 완주군민과 전북도민 모두가 따끔하게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유세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전북에 인물이 나오지 않아 투표하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제 제대로 인물이 출마했다”면서 “조배숙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

입한 인재이다. 조배숙 후보를 꼭 당선시켜 전북발전을 위해 크고 유용하게 부러뜨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배숙 후보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전주 객리다림, 예곡시티 세병호 인근, 사부 신시가지 집중유세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을 설명한 후 “전북에서 민주당 집권으로 혜택을 누린 것은 중앙정치권과 연결된 소수 정치 및 관료 엘리트 그리고 그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 뿐이었다”며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새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도지사! 전북발전의 큰 힘! 조배숙을 꼭 선택해 달라”고 집중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 “군산 동백로 나운상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선정”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8일 “군산 동백로 나운상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은 군산 동백로 나운상가 변화와 군산시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한 결실이다”라며 관계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번 선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신영대 의원이 공모사업의 군산 나운상가 유치 필요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수차례 강조하고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키오스크, 서빙로봇, 시뮬레이션 등 을 적용해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동백로 나운상가 47개 영업장에는 올해 12월까지 국비 7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10%로 총 3.4억 원이 투입돼 태블릿 기반의 스마트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이 도입된다. /유호상 기자



사전투표에 참여한 송하진 도지사 부부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 송하진 도지사(오른) 여사가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전북선관위, 지선 막바지 예방·단속활동 강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반행위로 △인턴·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서기문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

는 행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담담행위에 대한 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 전북선관위, 장수군수 선거 ‘돈 선거 근절’ 총력 대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장수군수선거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선관위는 장수군 읍·면마다 ‘돈 선거 근절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군민에게 선거법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는 한편, 각 지역의 비물방출을 이용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장수군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공한문을 장수군수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했으며,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돼 군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돈 선거 근절 및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장수군수선거와 관련된 ‘금품선거’의 신속·엄정한 조처를 위해 전북경찰청과 상호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